



# 화상연고

## 요약

화상연고는 열에 의해 피부에 생긴 손상을 치료하는 연고 형태의 의약품을 일컫는다. 일광 화상과 같은 1도 화상에 사용되는 화상연고는 진정, 항염증, 피부재생, 보습작용이 있으며, 2도 화상으로 수포가 생긴 감염성 화상에 사용되는 항생제 연고는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 외국어 표기

burn ointment(영어)  
火傷軟膏(한자)

동의어: 화상치료연고

유의어·관련어: 화상치료제, 火傷治療劑, 화상치료약, 火傷治療藥, 화상에 바르는 약, 일광 화상에 바르는 약, sunburn ointment

## 화상

화상은 불,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피부에 생긴 손상을 말한다. 화상이 발생하면 우선 응급처치로써 흐르는 찬물 등으로 국소 부위를 냉각시켜야 한다. 그 후의 대처법은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화상은 국소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이다. 국소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 등이 일어나며, 3~5일 정도 지나면 낫는다.

- 2도 화상은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이다. 수포가 발생한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수포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치료는 약 3~4주 걸린다.
- 3도 화상은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로 세균감염, 조직괴사가 심해 흉터를 남긴다.

고온에 순간적으로 접촉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 일광(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붉게 변하고 화끈거리는 경우도 약한 화상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화상 부위가 빨갱게 되고, 물집이 생기는 등 정도가 약한 1도 화상이나 경증 2도 화상의 경우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여 가정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아야 한다.

## 약리작용

화상연고는 열에 의해 피부에 생긴 손상을 치료하는 연고 형태의 의약품을 일컫는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1도의 가벼운 화상에 사용되는 화상연고는 진정, 항염증, 피부재생, 보습작용이 있다. 화상은 열에 의해 환부가 심하게 탈수된 상태이므로, 화상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습윤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피부조직의 재생과정에서는 습윤한 환경일 때 염증반응과 상처 치유를 일으키는 세포와 물질들의 이동이 활발하므로 치유가 잘 일어난다.

2도 화상으로 수포가 생긴 감염성 화상에 사용되는 항생제 연고는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 상처 치료연고인 푸시드산, 무피로신, 네오마이신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추출물 복합제 등의 항생제도 1~2도의 감염성 화상 치료연고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는 일반 상처치유 연고보다 더 광범위하게 세균과 진균(곰팡이)에 대한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 종류

화상연고는 감염성 화상 치료연고와 비감염성 화상 치료연고로 구분할 수 있다.

### 감염성 화상 치료연고

2도 이상의 수포가 생기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화상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으며, 다음의 항생제가 주로 사용된다.

- 설파디아진은(銀): 설파제의 구조를 가지는 항생제로서 2~3도의 화상이나 피부궤양으로 인한 세균, 효모균(곰팡이 균의 일종) 등의 감염 치료에 사용된다. 가벼운 화상에는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증의 화상 치료에 사용된다.
- 3중 복합 항생제: 바시트라신, 네오마이신, 폴리믹신B의 3가지 항생제가 복합되어 있으며, 1~2도의 감염성 화상에서 감염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세균뿐 아니라 진균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 티로트리신: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된 1~2도의 화상에 사용된다. 진균 감염에 대해서도 살균작용이 있다. 겔제이므로 연고보다 끈적임이 덜하다.

### 비감염성 화상 치료연고

자외선에 의한 일광 화상 등의 1도 화상과 경증의 2도 화상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보습과 피부재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며 다음의 약물이 있다.

- 구아야줄렌: 케모마일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이다. 소염, 진통, 진정효과가 있어 화상이나 궤양의 치료에 사용된다.
- 트롤아민: 1~2도 화상 및 기타 비감염성 화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방사선 치료에 의한 홍반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상처부위에 습윤환경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세균감염을 억제한다.
- 베타시토스테롤: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진 식물성 스테롤이다.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화상부위에 적절히 습기를 유지시켜 화상 치료를 돕는다.
- 텍스판테놀: 햇볕에 탄 일광 화상에 보조치료제로 사용된다. 상피에서 흡수되어 판토텐산으로 전환된다. 판토텐산은 세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코엔자임 A의 성분이 되며, 코엔자임 A는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성분들을 합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Table 1. 국내에 시판 중인 화상연고

구분	약물	제품 예	전문/일반
감염성 화상 치료연고	설파디아진은	실마진 <sup>®</sup>	전문
	바시트라신, 네오마이신, 폴리믹신B	바스포 <sup>®</sup>	일반
	티로트리신	유티리 <sup>®</sup>	일반
비감염성 화상 치료연고	구아야줄렌	아스렌에스 <sup>®</sup>	일반
	트롤아민	비아핀 <sup>®</sup>	일반
	베타시토스테롤	미보 <sup>®</sup>	일반
	텍스판테놀	비판텐 <sup>®</sup>	일반

## 효능·효과

약물별로 차이가 있으나 감염성 화상 치료연고는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에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막아주며, 비감염성 화상 치료연고는 일광 화상 등 1도~경증 2도 화상 치료에 사용된다.

## 용법

연고 형태의 제제를 화상 부위에 적용한다. 화상의 정도와 약물에 따라 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 금기

- 눈 주위의 화상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눈 주위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한다.
- 설파디아진은(銀)은 생후 2개월이내 신생아, 조산아, 미숙아, 임신 말기,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가벼운 화상에 사용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티로트리신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코 점막 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 트롤아민은 출혈성, 감염성 피부 상처부위, 감염부위, 이식을 하기 전의 피부이식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텍스판테놀은 감염성 또는 삼출성(진물이 나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는다.

## 부작용

화상연고 사용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설파디아진은: 백혈구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 피부괴사, 동통, 발진, 발적, 광과민증, 접촉피부염, 간질성 신염, 화농성 감염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 3중 복합 항생제: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티로트리신: 피부 화끈감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구아야줄렌: 열감, 소양감, 따끔따끔한 느낌 등의 피부의 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트롤아민: 중등도의 일시적인 따끔따끔한 느낌, 드물게 접촉성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다.
- 텍스판테놀: 드물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주의사항

모든 화상연고는 정해진 부위에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약물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파디아진은

- 약물 또는 광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홍반성루푸스 환자, 간, 신장에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 설파제의 전신 투여와 같은 증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을 피한다.

### 티로트리신

눈에 직접 닿으면 화끈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눈 주위에 사용할 경우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롤아민

살균제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상처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3중 복합 항생제

신장에, 난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설파디아진은, 3중 복합 항생제, 베타시토스테롤

감작(과민상태가 됨)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감작의 징후(가려움, 발적, 부종, 구진, 소수포 등)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상호작용

상처연고 중 설파디아진은과 함께 투여 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외용 효소제제는 설파디아진은의 은성분이 외용약과 결합하여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주의한다.
- 화상부위가 광범위한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혈중 설파디아진 농도가 높아졌을 때 경구 혈당강하제나 페니토인을 투여하면 설파디아진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중 설파디아진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넓은 면적의 화상부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시메티딘을 병용 투여했을 때 백혈구감소 발생빈도가 증가될 수 있다.

## 소아, 청소년 사용

설파디아진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숙아, 신생아(생후 2개월 이내)는 간기능이 미숙하므로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표면에 투여할 경우에는 핵황달\* 등 간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핵황달(kernicterus): 혈액 내에 적혈구의 파괴산물인 빌리루빈이 간에서 대사되지 못하여 체내 축적된 경우, 알부민에서 분리된 빌리루빈이 뇌 세포 내로 확산이 되고 뇌의 구조물에 침착되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 고령자 사용

고령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 임부·수유부 사용

- 설파디아진은 임신 중 사용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티로트리신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설파디아진은, 티로트리신은 수유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